



# 광남일보



주간 제 8077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5월 4일 월요일 (음력 3월 18일)

## 민주 VS 非민주 대결... 텃밭 수성이나 돌풍이나

전남광주특별시장·교육감·기초단체장 등 총 441명 선출  
민주당, 전 지역 석권 목표 속 격전지 10곳서 초점전 예고  
민주 경선 끝나자 맥빠져... 경선갈등·표심이탈 변수도

### 6·3지방선거 D-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꼬박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6·3 지방선거 대진표는 큰 틀에서 완성됐다. 민주당이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에 힘입어 압승 할지,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전략적 선택으로 야당과 무소속이 선전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전환을 앞두고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7명, 광역의원 91명, 기초의원 320명이 새롭게 선출된다. 여기에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광산읍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총 441명을 뽑는 대규모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고공 지지율이 배경이 돼 '몽천이 당선'이라는 식으로 당내 경선을 본선처럼 치렀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무공천 얘기가 나오는 등 벌써 '맥빠진 선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히려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들이 활발하게 선거판을 누비며 기존 정당에 비상하게 하거나 실망하는 유권자를 파고들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 이후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치열한 경쟁을 거쳐 민형배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정현 후보를, 진보당은 이종욱 후보를 정의당은 강은미 후보를 각각가 맞서는 4자 구도가 형성됐다.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이행부터 청사 입지 등 각 후보의 해법이 본선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광주 5개 자치구에 임택(동구), 김이강(서구), 김병내(남구), 신수정(북구), 박병규(광산구) 후보를 내세웠다. 전남 역시 22개 시·군에서 본선 진출자를 확정하며 조직 준비를 마쳤다.

지역별로는 목포 강성희, 여수 서영학, 순천 손훈모, 나주 윤병태, 광양 정인화, 담양 박종원, 곡성 조상래, 구례 장길선,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화순 임지락, 장성 김한중, 장흥 김성, 강진 차영수, 해남 명현관, 영암 우승희, 무안 김산, 함평 이남오, 영광 장세일, 완도 우홍섭, 진도 이재각, 신안 박우량 후보 등이 본선에 나선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대숲향기 사이로 휴일을 맞아 3일 오후 담양대나무축제를 찾은 나들이객들이 형형색색의 대나무등이 달린 축원 대숲사이를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주제로 5일까지 축원과 종합체육관, 담양음악당 일원에서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와 공연,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통합교육감 사실상 '3파전'... 단일화·검증 공방 격화

김해룡·고두갑, 이정선으로...정성홍, 장관호로 단일화  
김대중, 도박·출장비 의혹·이정선, 직권남용 재판 변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선거가 후보 단일화와 각종 의혹 공방이 맞물리며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정선·김해룡·고두갑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 진영과 전교조 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선거 구도는 사실상 3파전으로 재편됐다.

3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장관호(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공천위원회가 실시한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해 광주·전남 사회노동단체가 지지하는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장 후보는 광주·전남 전교조와 사회노동단체 지지층 결집이 향후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이정선·김해룡·고두갑 예비후보는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공식 발표했다.

세 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의 단일화에 합의한 뒤 두 차례 조사를 거쳐 이정선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김해룡·고두갑 후보는 향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선 후보는 "두 후보의 교육 철학과 혁신 역량을 이어받아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완성에 동단체 지지층 결집이 향후 선거 판세의

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김대중·이정선·장관호 예비후보의 3자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선두권 후보들을 둘러싼 검증 공방도 거세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전남교육감 재직 당시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출입과 출장비 과다 지급 의혹 등으로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광주시교육청 정책발표회에서 "해외 출장 중 일과시간 이후 카지노를 방문한 적은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도박을 한 적은 없고 방문도 베트남에서 1회 정도로 기억한다"며 "상대 후보 측이 상습 도박처럼 물이가는 것은 과장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국회 출장시 항공권 비용 과다 책정의혹에 대해서는 "호주 출장 당시 항공권 비용에는 국내선 이동 경비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과다 지급된 항공료 730여만 원을 반환한 것은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행정 실무자 부담도 고려해 자비로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예비후보의 광주시교육감 재직 당시 감사관 동창 채용 관련 직권남용 재판 등도 선거 변수로 꼽힌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조직적으로 연동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민주당 당원 SNS 대화방 등에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연일 공유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조직과 교육감 선거의 연대 움직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광주 가장 비싼 땅은 '충장로2가 우체국'

㎡당 1105만원...개별공시지가 광주 1.70%·전남 0.49% ↑

광주·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1.70%, 0.49% 상승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의 결정·공시 대상은 37만필지, 전남은 559만필지다. 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개별 필지 기준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

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122만원 하락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일대로 ㎡당 90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남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4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1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모지로 ㎡당 166원으로 나타났다. 이소홍 기자 photo25@

어린이날 휴일로 5월 5일자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